‘조계산 호랑이’ 활안 대종사 면면을 그리다

활안 대종사 원적 4주기 다례재 · 부도탑비 제막

10월 4일 송광사 천자암서 자광 대종사 등 참석 · 추모 현봉 스님 직접 비문 지어 “속환사바하시어 전법도생을”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총림 송광사 천자암은 10월 4일 활안 대종사 원적 4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와 탑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구순을 넘어서도 새벽 3시에 일어나 직접 목탁을 들고 정근하는 등 부단한 가행정진으로 후학들에게 큰 교훈을 안겼던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신광당 활안 대종사의 유훈을 되새기고 선양하기 위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조계총림 송광사 천자암(주지 법웅)은 10월 4일 활안 대종사 원적 4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와 탑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추모 다례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상월 보선 대종사(대흥사 조실)를 비롯해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대종사, 회주 영진 스님, 수좌 범종 스님, 선덕 현묵 스님, 주지 자공 스님 등 송광사 본말사 대중스님들과 문도스님들이 참여해 활안 대종사를 추모했다.

행사는 대웅전 사시예불과 종사영반 등 다례재에 이어 사찰 입구에 마련된 활안 대종사 부도 옆 탑비에서 불교의례, 경과보고(감원 법웅 스님), 제막식, 음성공양(대승사불일합창단), 비문 낭독(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 헌화, 대중삼배, 추모사(원로회의 자광 스님), 인사말(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했다.

송광사 방장 현봉 대종사는 직접 지은 비문의 글을 통해 대종사의 행적과 수행의 면면을 대중에게 보였다. 이를 통해 현봉 스님은 “선지식을 두루 찾아 탁마하고 정진하다 천자암에 둥지 틀고 40년을 지내시니 문 걸어도 붉은 꽃잎 씨를 따라 날아들고 묵언해도 산새들은 뜰에 자주 찾아왔네”라고 추모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추모사에서 “전국의 수행 도량들이 활안 대종사가 가신 뒤로 혼미해졌다. 스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공덕이 너무나 크고 깊다. 속환사바하시어 전법도생해 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대덕스님을 모시고 추모행사를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 대종사의 유훈을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도를 대표해 상좌 법웅 스님은 경과보고에서 “은사스님이 원적하신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난해 부도에 이어 올해 탑비를 제막하게 되었다. 앞으로 천자암은 심부름하는 자세로 사부대중이 늘 수행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활안 스님은 1945년 순창 순평사로 출가, 1953년 수덕사 월산 스님을 은사로 승적에 공식으로 이름을 올렸다. 1958년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상원사, 칠불암, 범어사, 용화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40안거를 성만했다.

1977년 송광사 구산 스님의 권유로 송광사 천자암에서 주석해 수행가풍을 세우며, 매일 새벽 2시부터 도량석으로 하루를 시작해 예불헌공, 천도재, 운력, 참선으로 이어지는 용맹정진과 도량을 일궜다. 1999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선출됐고, 2004년에 대종사 법계를 품수받았다. 스님은 2019년 천자암에서 세수 94세, 법랍 67년에 입적했다.

가을 강화엔 ‘삼랑성문화축제’가 있다

전등사, 제23회 삼랑성문화축제 10월 7~14일 경내 일원서 개최 음악회 · 작가전 등 볼거리 ‘다채’ 구효서 작가 등 인문강좌 ‘눈길’



2020년 열린 삼랑성역사문화축제의 모습.

강화도 대표 축제인 삼랑성역사문화축제가 강화 전등사 일원서 열린다.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경내에서 제23회 삼랑성역사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10월 7일 오후 6시 30분 전등사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이어 김창완 밴드, 크레즐, 김태연, 미디어퍼포먼스(좋은 친구들) 등이 출연하는 가을 음악회로 시작을 알린다.

10월 8일 오후 1시에는 전등사 특설무대에서 반목과 대립의 역사에서 화합과 소통의 역사로 전환되길 기원하는 영산대재가 봉행된다. 시련, 법고무, 대령, 복청게, 천수바라, 도량게, 법공양, 공연 순으로 진행되는 이날 영산대재에서는 고려 원종의 행차가 재현되고, 유경근 호국영령의 위령재가 봉행될 예정이다

올해 삼랑성역사문화축제에는 기존의 역사 강좌 외에 인문학 강좌도 신설돼 눈길을 끈다. 10월 7일 오후 2시 무설전에서 김준우 EBS 인기강사가 역사강좌를 연다. 김준우 강사는 수많은 외침을 이겨내고 민족혼을 지켜온 현장인 강화도의 역사를 소개하고, 능률적인 한국사 교육 방법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10월 14일 오후 1시 무설전에서는 강화 출신 구효서 소설가가 인문학 강좌를 연다. 구효서 소설가는 강화도에서 보낸 유년기, 청소년기가 소설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불교와 문학이 조우한 지점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10월 15일 전등사 경내에서는 특별행사로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대를 물리친 양헌수 장군의 승전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내내 다채로운 특별전시회들이 열리는 것도 삼랑성역사문화축제만의 특징이다. 정족사고 특별전시관에서는 중진작가들의 예술혼이 깃든 회화작품들이 전시된다. 상상(想像)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권여현, 민정기, 박지호, 송만규, 오숙환, 우종택, 이광, 장진, 정종미 등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인다. 정족산성진지에서는 삼랑성 역사문화 사진전이 전시된다. 삼랑성과 전등사의 아름다운 사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 사진전에는 심사를 통해 공모전에서 뽑힌 사진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무설전 마당에서는 옛터를 지켜온 불탑 사진전이, 대조루 특별전시관에서는 불화 및 민화전이, 월송요 마당에서는 조선시대 군사 깃발전이, 은행나무 주변에서는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들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된다.

신중일 기자

근대 포교당 효시 정법사 111년史 되짚다

창건 111주년 행사 ‘다채’ 역대조사 다례제 · 사진전 등



근대 한국불교 포교당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가 창건 111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다례재와 만발공양 법요식을 봉행했다.<사진>

10월 3일 정법사 2층 만불전에서 봉행된 역대조사 다례재와 만발공양 법요식은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창건주인 구하 대선사와 초대 포교사 경봉 대선사를 비롯한 고암 대선사, 성공 선사 등 역대포교사와 주지스님의 다례재와 정법사의 111년을 기록으로 살펴보는 전시회, 만발공양으로 이어졌다.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창건의 목적 자체가 불자들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직 전해 받지 못한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앞선 111년이 민족과 불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매진해 왔듯이, 앞으로도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많은 이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창건주 구하 대선사를 비롯한 역대조사님들께서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함께해 주셨던 큰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거룩한 자리는 없었을 것이다”며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스님과 불자님들이 공부하고 이 도량을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나라와 더불어 마산이 행복을 만들어 가는 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수륙무차평등대재·문화제 개최

경내 일원서 프로그램 다양 현봉 스님 초청법회도 눈길



붉은 꽃무릇이 온 산하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9월 23일 제15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문화제는 선운사의 오랜 역사와 전통, 사시사철 빼어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수륙무차평등대재, 현봉 스님 초청법회,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내 대웅보전 앞 특설무대에서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봉행된 수륙무차평등대재는 시련, 대령, 사자단 의식, 오로단, 중단, 상단, 하단 권공, 봉송 등 불교전통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수륙무차평등대재는 우주의 모든 존재에게 어떠한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올리는 공양의식으로 진관사, 삼화사, 창원 백운사 등의 수륙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지만, 호남권 사찰에서 수륙재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며 “한국불교의 주류의식은 선운사 백파긍선대종사의 작법귀감에 기초하고 있다. 작법귀감이 호남지역의 의례를 모았다는 점에서 호남지역 수륙재의 원형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법어를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아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수륙무차평등대재이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전북교구 방문

9월 25일, 종도스님들 만나 종단 발전 방향 관련 대담



올 7월 12일 태고종 2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상진 스님이 전북교구를 초도순시했다.<사진>

9월 25일 전북종무원을 방문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전북교구 사암 및 교구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종도들과 종단 현황과 집행부의 종단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사서실장 원오 스님, 사서국장 일묵 스님, 사회부장 도희 스님, 홍보부장 현담 스님, 이상곤 태고종 특보가 배석했다.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한 교역직 스님들과 전북교구 종회의장 법전 스님 등 지방종회의원 스님, 전북영산작법보존회장 영산 스님, 이재현 신도회장 등 각급 신행단체장도 참석했다.

전북교구 종회의장 법전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총무원장 상진 스님에 대한 종도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총무원장스님께서 앞으로 더 약진하고 모범적인 종단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이 종단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전북종무원도 이웃과 함께하는 종무원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복지와 사회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전북종무원의 치하하고 “태고종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태고종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통해 종단을 성심성의껏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종도스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종단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성심껏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과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반야심경 목판본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 전파와 붓다전기 변화 양상 살핀다

동국대WISE캠 불교사회문화硏 10월 13일 학술세미나 개최

불교 전파와 함께 전해진 붓다 전기(傳記)의 변화 양상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석길암)은 10월 13일 오전 10기 30분 교내 진흥관 B103호에서 ‘불교의 전파경로와 붓다전기의 변용 양상: 붓다전기의 한국적 형성화 과정의 전(前) 이해V’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성택 고려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율장의 붓다 전기와 불타관(김보과, 동국대 박사수료) △중국 양무제 사신(捨身) 활동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연구(한지연, 동국대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억불숭유국가에서의 왕권과 불교: 조선중기 팔공산 은해사 중건의 배경을 중심으로(혜성 스님, 동국대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화엄경> 환(幻)의 용례분석: 환에 대한 한 · 중의 비판사례를 중심으로(김희, 강원대 철학과 교수) △성리학의 중화론변에서 보이는 불교의 영향과 변용: 주희의 중화신설 수양론 구축 과정을 중심으로(김종용, 동국대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화엄불교의 사종법계설과 법계원융에서 본 ‘무주처(無住處)로서의 법신’(박수현,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연구원)이 발표된다.

신중일 기자

잠실 불광사, 가을 국화로 장엄되다

10월 30일까지 국화향기 나눔전



잠실 불광사가 형형색색 시월 국화로 장엄됐다. 잠실 불광사(주지 동명)는 10월 4일 본당 앞마당에서 제4회 불광사 국화향기 나눔전 ‘바라밀 국토에 다시 피는 국화’를 개막했다.<사진>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은 “많은 희생과 서로의 협조 속에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며 “국화가 활짝 폈듯이 우리 불광도 우리들의 헌신과 사랑 속에서, 오직 반야바라밀 다행을 닦음으로써 반드시 국화꽃처럼 향기롭게 다시 피어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참석대중들은 각자의 소원과 희망을 국화 서원지에 담아 일주문 옆 비로자나부처님 전에 올렸다. 정성스레 국화 서원지를 작성한 불광사 신도 김성미 씨는 “불광사 도량에 국화꽃이 만발하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면서 “우리 불광도, 우리 사회도 서로 화합하고 평화로워지길 바라고 우리 가족들도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원을 올렸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4회 불광사 국화향기 나눔전 ‘바라밀 국토에 다시 피는 국화’는 10월 30일까지 불광사 본당 앞마당과 대웅전에서 이어진다.

신중일 기자

익산 삼불암, 석조 11달마대사상 점안

추석 맞아 쌀 · 라면 전달도



기도와 참선수행도량으로 선농일치를 실천하고 있는 익산 삼불암(주지 심월)이 절 앞에 조성된 선부달마공원에 11기의 석조 달마대사상을 조성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9월 22일 봉행된 석조 11달마대사 점안식은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증명법사로,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영산)의 집전으로 봉행됐다.

태고종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인도의 왕자로 태어난 보리달마대사는 중국으로 건너와 선종의 초조가 되었다. 그 달마대사의 뜻이 오늘 이곳 삼불암에 이어져 불법이 융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삼불암은 추석을 맞아 익산시청(시장 정헌율)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해달라며 자비의 쌀 1000kg(10kg, 100포)과 채식라면 100박스(총 싯가 700만원)를 지원했다. 또 동참지역주민들에게도 쌀 2500kg(10kg 250포)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